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이중계약

알렉스 어바인



이중 계약

알렉스 어바인

오토마르 드렌테는 자신의 최근작에 대한 논평을 시청하며, 자치령의 잘난 평론가들의 무식함에 분개했다. 그때, 그의 대리인이 연락을 해서, 어쩌면 뭔가 다른 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던지시 건넸다.

"어떻게 다른 일?" 드렌테는 딱 잘라 말했다. "난 드렌테요. 드렌테식 홀로비드를 만든다고."

"그럼, 당연하지." 대리인이 말했다. "하지만 이 건은 너도 구미가 당길 거야. 작업 기간은 최장 2주. 그리고 이 금액 좀 보라고."

대리인의 뚱뚱하고 탐욕스러운 얼굴 아래에서 숫자가 번쩍었다. 정말로 드렌테가 다음 질문을 던지게 만들 만한 액수였다. "이 고객이 드렌테에게 뭘 원하는 거지?"

"광고야. 아니, 끊지 마. 액시움 군수 회사에서 전투 장면을 촬영할 거야. 새로운 전투용 보행 장비를 만들었는데, 자치령 구매 담당자들에게 끝내주는 인상을 주고 싶은 모양이야. 네 작품의 팬이라고 하더라고, 드렌테."

그 점이 일반적인 홀로 평론가들과는 달랐다. "광고라고." 그는 코웃음 쳤다.

"드렌테답지 않은 일인데."

"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대리인이 말했다. "'변방의 영웅들'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지저분한 문제가 좀 있어." 그게 드렌테가 만들고 싶어 하는 다음 작품이었다. 저그의 침공에 맞서 적의를 품은 유령 요원이 프로토스 기사와 사랑에 빠진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내용을 담은 장엄한 전쟁 서사시. 그는 벌써 몇 년째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제?"

"사실, 자금이 모이지 않고 있어. 하지만 이번 액시움 건을 하면, 그 작품을 찍을 날이 훨씬 가까워 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드렌테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감독의 시련인가. "변방의 영웅들이 다음 프로젝트라고 약속하면 드렌테가 이 광고를 찍지." 드렌테가 모멸감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좋아. 계약서를 주지. 하지만 내일 아침에 부카리 V로 가야 해. 촬영 일정이 빡빡하거든. 액시움 군수 회사에선 2주 뒤에 이 보행 장비를 홍보하고 싶어해."

"부카리 V?" 드렌테가 듣도 보도 못한 행성이었다.

"걱정 말고." 대리인이 말했다. "일단 우주공항으로 가."

수송 여객선이 코탈을 떠난 지 8시간쯤 되었을 때, 주점에 앉아 브론테시아산

브랜드를 한 잔 하던 드렌테에게 낯선 자가 다가왔다. "오토마르 드렌테 씨." 낯선 자가 말했다. "뜻밖의 영광이로군요. 부카리 행성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저명한 예술가를 만날 줄이야. 거긴 예술의 불모지인데."

"계속 불모지로 남을까 봐, 드렌테는 걱정이요." 드렌테가 말했다. "드렌테의 품격은 떨어졌고, 기업의 광고용 홀로나 만드는 감독으로 전락했소." 그는 살짝 취해 있었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다.

"정말입니까? 혹시 액시움 건?"

"유감스럽지만 그렇소."

낯선 자는 손을 뻗었고, 드렌테는 악수했다. "엘리라고 부르십시오." 그가 말했다.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드렌테는 주점의 낯선 자들이 제안을 한답시고 나서는 일에는 진저리가 나 있었지만. 뭐, 듣는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뭘 제안?"

"드렌테 씨는 액시움의 새 중장갑 보행 장비인 투견의 홍보 영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엘리가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말했다.

'투견이라.' 드렌테는 생각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전 액시옴의 직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죠. 그러다 보면 뭔가 듣기도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드렌테는 수상함을 느꼈다.

"그래서 말인데." 엘리가 말했다. "투견의 생산을 원하는 자들도 있지만, 원치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액시옴에게 특정 금액의 크레딧을 제안 받았을 텐데, 제가 그 금액의 두 배를 주고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드렌테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다. "흥미롭다니 무슨 뜻이요?"

"정식 연습이라 생각하십시오. 투견 홍보지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홀로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후하게 지불한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단, 꼭 드렌테가 만들어야만 한답니다."

"속이 뻘히 보이는 아부로군." 드렌테가 말했다.

"상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말했다. "꼭 크레딧 때문이 아니더라도 액시옴이 탐욕스럽고 야만적인 살인마 놈들이고, 전 구역의 무고한 저항군을 짓밟는데 이 새로운 투견을 쓸 거란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그 토벌에 쓸 수도 있지." 드렌테가 말했다.

" 그건 당신만의 생각입니다. 만약 투견이 저그전에 투입된다면, 전 구역의 저항군 제거 작업이 끝난 뒤에도 기체가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못 보셨군요. 녀석은 대전차 및 대장갑, 그리고 약간의 대공 능력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근접 유닛입니다. 그게 저그에 얼마나 유용할까요? 어떤 멍청이가 저그와 싸우려는 데 한 가운데로 파고들어가야만 쓸모 있는 유닛을 설계할까요?"

드렌테는 제안을 고려했다. 그는 전략가가 아니었고, 당연히 군사 장비 생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투견의 초기 모델이 본격 생산 후에 어떻게 쓰일지 엘리는 어떻게 이리 확신할 수 있었을까? 엘리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맞는 말이었다. 돈도 고려할만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드렌테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만약 홀로비드가 결과적으로 그가 이해한 것 반대의 용도로 쓰인다면 계약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드렌테는 윤리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위대한 홀로의 창조자였지만 지금은 돈을 좇는 자로 몰락했을 뿐이다.

순간, 드렌테는 깨달았다. 따지고 보면 그는 광고 안에 광고, 메시지 속에 또 다른 메시지를 담은 홀로 제작을 요청 받은 것이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광고 다큐멘터리라. 이 사실을 깨닫자, 흥미가 생겼다. 이런 게 예술이지. 그는 예술가였다.

크레딧도 그의 구미를 당겼다. 액시옴이 제안한 액수의 두 배? 게다가 대리인 커미션도 없다고? 그의 머리 속에서 변방의 영웅들 촬영 첫 날의 광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 보니." 드렌테가 의도적으로 엘리의 말을 따라 하며 말했다.

"드렌테가 해야겠소."

드렌테가 액시옴을 걱정해 줄 이유는 없었다.

그 이후로 드렌테의 게임이 시작됐다. 두 고용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홀로를 만드는 게임, 그리고 그 안에는 스파이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긴장감 또한 어려 있었다! 그는 벌써 머리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변방의 영웅들 이후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한 홀로 감독이 오해로 인해 산업 스파이 건에 휘말리고, 온 은하계의 운명을 위협에 빠뜨린다...

"잘 됐군요." 엘리가 말했다. 그는 작은 기계를 꺼내곤 드렌테에게 화면의 숫자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반만 드리죠. 나머진 다 만들면 드리겠습니다."

드렌테는 안경을 올리고 말했다. "드렌테가 한 잔 사지."

그들은 부카리 V를 둘러싼 궤도에 진입했다. 드렌테가 자신의 1등 선실을 찾은

뒤, 아직 시작도 안 한 홀로에 대한 망상을 하다 브랜드에 의지해 간신히 잠든 직후였다. 드렌테는 함선의 인공지능이 모든 승객들에게 하선의 시작과 1시간 뒤에 있을 부카리 V의 궤도 표면을 향하는 마지막 여객선의 출발을 알릴 때서야 잠에서 깬다. 결국 드렌테는 간발의 차로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그는 액시옴이 선발한 PR 대리인이자 자신을 담당하게 될 다리오 세룰리를 만났다. 세룰리는 액시옴이 부카리 V에 만든 엄청난 크기의 생산 경영 단지에 있는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부카리 V, 어마어마한 양의 베스핀 가스와 원료 매장량 외에는 불품없는 행성이었다.

"제가 좀 안내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렌테가 방에 짐을 내려놓기 무섭게 다리오가 말했다. 그는 드렌테를 데리고 공업단지를 보여주었다. 지루하고 형식적이었다. 드렌테는 한 잔 마시고 싶어졌다.

공업단지에서 벗어나 건조하고 바람 부는 오후를 맞이하자 지루했던 투어는 조금이나마 흥미로워졌다. 태양은 하늘 높이 붉고도 무겁게 떠 있었고, 부카리 V의 네 달 중 하나가 마치 신의 얼굴에 난 점인 양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 또 다른 달은 동쪽 지평선에 초승달 모양으로 낮게 떠 있었다. 드렌테는 온난한 날씨가 싫었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가 성능 시험장이 될 겁니다. 사실 성능 시험장이자, 드렌테 씨의 주 촬영지이기도 하죠." 다리오가 두터운 담으로 둘러싸인 부서진 돌 투성이의 넓은 땅을 팔로 가리키며 말했다. "생산시설의 모습을 찍고 직원들과의 인터뷰도 넣을 겁니다. 벌써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을 몇 명을 선별해뒀습니다."

이 남자, 벌써부터 드렌테를 잘못 대하고 있다. '찍을 것, 인터뷰할 사람, 모두 내가 정해.' 그는 생각했다. '무기 생산업체의 대리인 따위가 감히. 난 드렌테라고.'

하지만 그의 답은, "알겠소."였다.

"좋습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그들은 성능 시험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홀로캠을 어디에 배치할지 보고 싶으시죠? 그건 조금 이따가... 이런, 이것 참 민망하게 됐군요."

그들은 왼쪽으로 대규모 공장단지, 오른쪽과 뒤쪽으로 성능 시험장을 낀 채 막 작은 언덕 위로 올라온 참이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아마 마을이겠군. 드렌테는 짐작했다. 그곳은 무채색에 거무칙칙했는데, 공장에서 500미터정도 떨어진 길에 수십 여명이 소리 지르며 표지판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무리 중심에는 눈길을 확 사로잡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긴 붉은 머리칼로 태양빛을 빨아들이며 표어를

외치는 노동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이건 뭐요?" 드렌테가 물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대중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눈을 땀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 직원 일부가 사는 숙소입니다. 저기는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오의 말은 공장 지대에서 차량 4대가 튀어나와 시위 중인 노동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에 끊겼다. 그 후, 모든 것은 폭동으로 번졌다. 드렌테는 제복차림의 액시옴

보안병들이 길다란 전기 진압봉과 군중 제어용 음파 장비를 쓰는 모습을 보았다.

앰블런스가 도착했다. 그들에게 들리는 소음은 거의 비명과 고함소리뿐이었다.

시위자들을 이끄는 여자는 중심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린 채 뭔가 드렌테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스파이 행위가 아니었다. 노동쟁의였다! 드렌테는 이번 여정에서 기대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보안병 한 명이 여자의 옆 머리를

진압봉으로 때렸고, 여자는 군중 사이로 사라졌다.

"믿을 수 없군." 다리오가 말했다. 그는 휴대용 통신 장치를 펼쳐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라일리."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지금 드렌테 씨에게 성능 시험장을

보여주는 중이었어. 지금 꼭 그래야 했어?"

드렌테에겐 답이 들리지 않았다.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말 안 했잖아, 라일리.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애들 들어 보내. 지금 당장. 아무도 잡아넣지 마. 당장 저기서 쫓아내."

다리오의 통신 장치를 닫아 끄고는 말했다. "미안합니다. 드렌테 씨도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시죠? 노동자들은 항상 우리가 자신들의 돈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혼란은 보안병들이 퇴각하자 사그라졌다. 시위자 몇 명은 도로와 도로 주변에 누워 있었다. 드렌테는 그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앰블런스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다른 노동자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부축하여 공장촌으로 갔다. 처음 드렌테의 눈에 띄었던 여자는 얼굴에 피가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는데도 부상자 인도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가. 조각상처럼 강하고 역세다.

야만적이다. 드렌테는 생각했다. 그리고 다리오 몰래 조금이나마 그 내용을 담아둘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는 드렌테였다. 주위 환경을 담을 수 있는 레코더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았다. 그의 셔츠의 단추와 벨트의 버클에는 특수 제작한 초소형 레코더가 탑재되어 있었고, 그가 오른손에 낀 반지도 사실 초소형

렌즈였다. 그가 다른 이야기를 찍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찍고 있었다. 끝없는 이야기이다. 드렌테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순 없으니까.

"방금 일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드렌테는 자신을 힐끔 쳐다보며 말하는 다리오의 눈과 입가에서 긴장감을 포착했다. 액시옴의 작업 현장은 드렌테의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었다. 아니, 다리오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로웠다. 드렌테는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보는 걸 광적으로 좋아했다. "액시옴은 항상 노동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시겠지." 드렌테가 말했다. 그는 빨간 머리 여자의 이름과 그녀를 인터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다리오는 당연히 허용치 않겠지만, 방법이 있을지도?

"네, 그럼 구역을 둘러보셨으니. 이제 좀 쉬시는 건 어떨까요?"

'변방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드렌테는 동의했다. 그들은 공장촌, 공장 노동자들과 거의 분리된 듯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경영 단지로 돌아가다 엘리를 만났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엘리가 말했다. "다리오 씨. 드렌테 씨를 구경시켜드렸다면서요?"

"못 볼 것도 보셨지만요." 다리오가 말했다.

"들은 대로군요." 엘리가 말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리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 성인이니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죠. 불만족한 몇몇이 대중적인 불안감을 형성할 때, 액시옴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요. 불쾌한 일이지만 액시옴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규율을 지키는데 매우 엄격합니다. 어쨌거나 아직 인사 안 하셨죠? 엘리 씨, 드렌테 씨입니다. 드렌테 씨, 엘리 씨입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엘리가 말하며, 다시 드렌테와 악수했다.

"아 그러셨죠? 여객선에서요. 엘리 씨는 우리의 컨설턴트입니다."

엘리는 드렌테에게 윈크했다.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죠. 저명한 예술가 분을 만나 영광이었습니다."

*

드렌테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엘리를 만났다. 드렌테는 황무지에서 고정 레코더를 배치할 최상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모바일 렌즈로도 대부분의 액션을 담을 수 있었지만, 드렌테는 홀로의 스토리텔링에는 때때로 고정된 시점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꽤 구시대적 방법이었지만 그는 드렌테였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저기서 다치시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다칠 수 있소? 투건은 그저 건설로봇에 커다란 화염방사기가 달린
녀석이라고 했잖소?"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드렌테 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약간의 과장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실 테죠?"

"내가 나만의 노출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이 낫겠군." 드렌테가 잘 쓰지
않는 일인칭 대명사로 말했다. 그는 불쾌했다.

"시연 때 쓸 제어 시스템. 이게 좀 보안에 취약합니다."

드렌테는 돌려 말하는 걸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제대로 말하십시오." 그가
요구하듯 말했다.

"무인 병력들이 무인 병력처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엘리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확실한 절차를 밟을 거란 소리죠."

'우리 둘 다라'. 드렌테는 생각했다. "그런가?" 그가 말했다.

"이 말만 하겠습니다. 투건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엘리가 말했다. "당신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감독할 때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홀로캡처를 잘 배치해서 투건이 당하는 모습을 담으세요. 아시겠죠?" 그는 음료를

다 들이키고 일어섰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군요."

그는 승객 칸으로 돌아갔고 드렌테는 홀로 남아 조건을 검토했다.

*

다리오가 일정을 정확히 맞추고 싶어했기에, 드렌테는 아침 일찍 엑시옴 주
공장 옆에 있는 경영 단지에서 그를 만났다. 그들은 드렌테의 요구사항을 검토했다.

요구사항에는 성능 시험장에 최소 10개의 원격 조종 홀로캠을 설치할 장소,
드렌테가 코랄에서 배송시킨 각종 카메라와 의자가 달린 감독용 플랫폼도 있었다.

그는 플랫폼 없이는 절대 세트장에 가지 않았다. "플랫폼이 완성되고 홀로캠이
배치되면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하겠소." 드렌테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지금 당장 못 박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는
잠시 사무실에 드렌테를 두고 나갔고, 그 사이 드렌테는 사무실의 모든 것과
창문에서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다. 공장 자체는 공장의 기준으로 볼 때
장관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기중기와 굴뚝들, 불타는 용광로의 입에서 엄청난
양의 원료를 옮기는 크레인, 쇠붙이 절단기의 비명 소리와 연발총을 쏘대는 듯한
대못총의 못 박는 소리. 부카리 V에서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작업이 밖에서 이뤄졌다. 드렌테는 경탄했다.

공단의 가장자리에 벽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투견의 초기 모델들이 서 있었다. 드렌테가 세어보니 마흔 네 개였다. 그들은 7미터 가량의 높이에 두 다리가 달렸고, 거친 지형에서 재빨리 움직일 수 있게 관절로 연결되어 있었다. 인간이었다면 어깨였을 그곳에는 미사일 포가 달려 있었고, 팔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여러 개의 캐논포가 달려 있었다. 드렌테는 건설로봇을 빗댄던 엘리의 말을 떠올렸다. 사실이었다. 투견의 기본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유닛, 건설로봇과 한 뿌리인 듯 닮아 있었다. 하지만 투견이 훨씬 더 컸다. 건설로봇의 조종사는 팔과 다리를 유닛의 외골격까지 뻗어야 했으나, 투견에는 다리와 장비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평행의 신경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었으므로 조종사가 투견 상체 안에서도 조종할 수 있었다. 드렌테는 투견의 움직이는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드렌테가 있는 곳에선 성능 시험장의 전망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각도가 마음에 들었다. 사무국의 착색된 유리창 안에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시연 때 실제 영상과 대조되는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다리오가 돌아왔다. "플랫폼은 오늘 저녁에 완성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모니터랑 이것저것 다요. 사람을 시켜 당신 방에서 의자도 빼왔고요."

드렌테는 사적인 물품들이 무작정 노출됐다는 사실에 속으로 열불이 났으나 아무 말도 않았다. 오만함은 카메라에 양념이 되어 담기겠지.

"창문으로 초기 모델들을 보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건설로봇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소?"

다리오는 웃었다. "사실입니다. 사실 사연이 있죠. 투견 생산 모델 태초의 조상은 건설로봇이었습니다. 야코브 일리브라는 기술자의 작품이죠. 그는 후방의 잘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작은 채광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원하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괜찮소, 계속 하시오." 드렌테가 말했다.

"혹시 지금 촬영 중이십니까?" 다리오가 말했다.

"그렇다면 홀로캠이 보이지 않겠소?" 드렌테가 물었다. "드렌테가 홀로를 찍으면 온 세상이 아는데."

"알겠습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일리브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인근 폭력배들과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건설로봇 몇 대를 개조하여 무기를 장착했고, 폭력배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본때를 보여줬죠.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보안 하청업체를 두고 있었기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리브를
해고하기 직전까지 갔죠. 근데 해고하기 직전에, 믿거나 말거나 액시움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모두 제가 입사하기 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일리브의 도안과
디자인을 가져온다는 내용도 인수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드렌테는 이 야코브 일리브라는 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술자는
어디 있소?" 그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제 생각에 은퇴하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재능은 있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 환경에
어울리는 성격은 아닙니다. 방랑자랄까... 왕따랄까. 반사회적인 사람?"

들어보니 드렌테는 예측할 수 있었다. 일리브는 이곳에서 쫓겨났으리라.
디자인은 몰래 받아낸 저작권 위임 계약을 핑계로 강탈했겠지. 뻔한 이야기다.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봐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드렌테는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일리브라는 캐릭터 자체는 흥미로웠다. 드렌테는 그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액시움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다리오의 얼굴 뒤로 드렌테의 기대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흥미롭군. 이 내용은 그의 손에서 액시움이 받아

마땅한 것 이상의 영상으로 탄생하겠지.

당시 그의 유일한 의구심은 어젯밤 엘리가 그에게 했던 이야기였다. 그때 대화를 되짚어 보면 드렌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투견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소"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투견은 살아 있는 조종사가 운행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사람을 써야 하는 이유죠. 조립 기술자들 중에서 선별한 사람들입니다."

드렌테는 소름이 돋았다. 그 조종사들... 만약 인공지능이 손상됐다면 죽을 수도 있잖아. 드렌테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곧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전차와 바이킹들로 무고한 노동자들을 학살하게 놔둔다고? 그럴 순 없지. 그는 윤리학자가 아니었지만, 멍하니 서서 잔학행위를 지켜볼 수 있는 부류의 인간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술가였다. 스토리텔러였다. 그리고 20여명의 투견 조종사를 학살하려는 엘리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드렌테는 이미 이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야코브 일리브가 설계도를 강탈당하면서 시작한다. 아니다, 끝에 넣는 게 나으려나...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종군

기자가 아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이 죽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을 순 없었다.

드렌테는 깨달았다. 엘리, 그자는 액시움이 일리브를 다뤘던 방식 그대로 드렌테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드렌테는 봉이었다. 그의 기술과 예술은 도난 당했고, 역겨운 임무를 맡았다. 드렌테는 이곳 부카리 V가 적들 투성이라는 걸 깨달았다.

드렌테에겐 그들과 싸울 친숙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감독의 눈과 홀로캠이었다. 드렌테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원하신다면 조종사들에게 간단한 전달사항을 공지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아침에 모아 오겠습니다. 잠재 고객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특정 행동들이 있는데, 그 뼈대만 유지하신다면 액시움도 만족할 거고 드렌테 씨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돼." 드렌테가 말했다. "그들을 감독할 수 없다면 별개로 찍을 거야. 어중간한 전달사항만 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약해지거든."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다리오가 말했다.

그랬군. 드렌테는 생각했다. 그가 처음 받은 일과 여객선에서 받은 두 번째 일을 합쳐보니 세 번째 일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거야말로 리얼

다큐멘터리였다.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광고를 찍는다는 명목 아래 희생되는 리얼
다큐멘터리. 게다가 나도 돈에 매수되어 그 일을 도울 뻔했다니! 가만, 그리고 보니
나라면 자신들이 곧 희생될 거란 사실을 알게 된 노동자들이 형세를 역전시켜,
압제자들에게 칼을 돌리는 내용의 광고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

그날 밤 늦게, 드렌테는 방에서 일어나 경영 단지를 벗어났다. "나는 드렌테요."
그는 홀로캠을 흔들며 보이며 경비병에게 말했다. "홀로를 만들고 있소. 오늘 밤에
공장과 성능 시험장의 모습을 담을 것이오."

경비병은 드렌테를 살펴보다니 곧 그가 VIP 특권을 가진 방문 예정자 목록에
올라있는 걸 확인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드렌테를 들여보냈고, 드렌테는 정문을
지나는 동안 경비병이 자기 작품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슬렸다.
여기 사람들은 문화 생활 안 하나?

정문 경비병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공장의
가장자리를 지나 성능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양손에 휴대용 홀로캠 두 개를
들고 있었는데 길가에 휙 던져버려도 나머지 작동사니와 산업 쓰레기들에 섞여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다른 이에게 넘겨줘도 모르리라. 그가 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장의 정문은 경비 중이나 마을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액시옴은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만큼 노동자들을 신경 쓰진 않는 것 같군. 첩자와 정보원들을 노동자들 사이에 투입하여 가장 목소리 큰 반란자를 근절하려 든 것도 무리는 아니지.

드렌테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경비병에게 설명했던 그대로 촬영을 시작했다. 그는 공장의 모습과 풍경, 그리고 부카리 V의 밤 하늘 영상을 담았다. 하늘엔 달 세 개가 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가리고 있었다. 드렌테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그 장면을 지켜보며 월식의 은닉, 겹침, 소실과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겹쳐 있던 두 달이 마침내 서서히 나뉘는 모습을 멍하니,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업무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에게는 찍어야 할 홀로가 있다.

공장촌은 어둡고 비참했다. 하나의 중심가를 사이에 두고 2-3층의 조립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주점 몇 개와 드렌테가 멍청한 모방자라 생각했던 감독을 모방한 경멸스러운 쓰레기 홀로비드를 상영하는 극장도 하나 있었다. 그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그를 훑어보았으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첫눈에 그를

외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뚜렷이 느껴졌다.

드렌테는 순간 자신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넘어선 상태였고, 소형 홀로캠이 그 모든 것을 담았다.

드렌테는 길 변두리에서 더러운 광경을 보았다. 건물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뿌리깊은 빈곤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볼품없이 늘어져 있었다. 드렌테는 이 모든 걸 찍었다. 그는 중심가를 계속 걷다가 주점에서 나오는 두 남자를 발견했다. 드렌테는 둘 중 한 명을 시위대에서 본 것을 기억했다. 키 크고, 대머리에 전투를 겪은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다른 남자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느슨해진 이를 만지고 있었다.

"실례지만." 드렌테가 말했다. "난 드렌테라 하오. 시위 장면을 보았소."

"지옥에나 떨어져." 느슨한 이의 남자가 말했다.

"빨간 머리의 여자가 있었소. 꽤 미인이던데." 드렌테가 말했다.

두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드렌테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당신이 그 홀로 감독이군." 다른 남자가 말했다. "드렌테."

"그렇소." 알아봐주는 데 만족하며 드렌테가 답했다.

"당신에 대해 들었소. 투견 시험 홀로를 만든다고. 액시옴 홍보팀이 쉬지 않고

떠들던데."

"그랬지." 느슨한 이의 남자가 말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위를 한 거요.

당신이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줄 알았지. 행동하지 못하긴, 개뿔."

'그 일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던 건 예상 못 했겠지.' 드렌테는 생각했다.

"아일라와 대화하고 싶소?" 대머리가 말했다. "힘들 거요. 액시옴과 한패인

자와는 대화 안 할 테니."

"할 거요." 드렌테는 말했다. "그녀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소."

"이봐." 대머리가 말했다. "내가 데려다 주지. 하지만 당신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당신 엉덩이를 걷어차 코랄까지 날려버리겠소. 난 감옥에도 있어봤고,

전쟁도 겪어봤소. 아침을 못 먹었을 땐 망할 저글링도 먹어봤다고. 내 말

알아먹겠소?"

"알겠소." 드렌테가 답했다. "그녀는 어디 있소?"

그녀는 인근 주점에 있었다. 그녀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드렌테를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인 양 쳐다보았다. "어제 시위 장면을 봤소." 드렌테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게 어때서?"

"이름이 뭐요?"

"아일라."

"아일라. 나는 드렌테라 하오." 드렌테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길 기다렸다. 그녀가 답이 없자, 드렌테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알아야 할 진실이 있소."

드렌테는 아일라에게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단, 액시옴과 그 안의 첩자, 양쪽에게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은 빼고. "혹시 액시옴 내부 기술자 중에 뭐랄까, 믿을만한 자가 있소? 물론, 이름을 묻지 않겠소."

"있다고 하면?"

"내일 제어 시스템을 손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알기로 당신의 투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병력들과 맞서게 될 거고."

"빌어먹을." 아일라가 음절을 하나하나 강조하며 말했다. "우릴 학살할 계획이었군. 엘리, 그자는 정말 최악이야. 그자가 죽으면 은하계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내 말 알겠어?"

"그렇군." 드렌테가 말했다.

"왜 이걸 말해주는 거지? 가슴에서 우러나온 친절함 같은 건가?"

"드렌테는 드렌테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만 동기부여를 얻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알아야 할 게 있소. 만약 이걸 방지할 수 있다면, 투견 소대는 단체교섭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거라는 사실이오."

*

다음날 아침, 시연을 보기 위해 엑시옴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드렌테는 레코더를 제자리에 배치했고, 아일라에게도 휴대용 레코더 두 개를 주었다. 부카리 V를 떠날 때쯤이면, 그의 손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가 쥐여있겠지. 이 이야기는 지난 몇 시간 만에 '변방의 영웅들'을 그의 머리에서 밀어냈을 정도였다. 그는 온 정신을 지금 이곳에 집중하고 있었다. 드렌테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성능 시험장은 약 500미터 지름으로 원형에 가까웠다. 시험장은 높게 솟은 언덕으로 가려져 있었기에 알팍한 그릇 모양처럼 보였는데, 그 바닥은 더 많은 암석의 지층으로 부서져 있었고, 시험장의 가장자리에는 공성 전차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북쪽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골리앗 모델과 공중, 지상 모두 활용 가능한 바이킹들이 정렬해 있었다.

드렌테는 기중기를 타고 올라 광경을 살펴보았다. 그의 감독 의자 근처에는

모니터의 벽이 호를 그리며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성능 시험장 주위에 있는 원격 홀로캠이 촬영하는 영상을 출력하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 다리오에게 연락했다. "드렌테는 준비됐소." 그가 말했다.

"반가운 소리군요." 다리오가 말했다.

공장의 끝에서 두 창고의 문이 열렸다. 각 창고의 문마다 10여대의 투견이 열을 갖추 나타났다. 드렌테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시연을 위한 대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만약 아일라가 인공지능 손상을 막아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일단 녹화가 시작되면 뭐든 준비가 되어야겠지. 그는 손이 잘 닿는 모니터 근처에 노트를 놓고, 성능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투견의 모습을 담고 있는 레코더의 영상을 보았다.

다리오는 드렌테에게 투견의 장점을 극찬하는 보이스오버도 주었다. 드렌테는 받자마자 그의 실제 촬영 때 그 보이스오버를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자연스러움과 준비성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휴대용 레코더의 모니터 중 하나에서 아일라가 나타났다. "성공했어." 그녀가 말했다. "인공지능은 본래 의도대로 움직일 거야. 하지만 인공지능을 손상시키려는 놈들 중 당신 친구 엘리가 있었어. 우릴 보자마자 튀더군. 그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를 찾겠지.' 드렌테는 깨달았다. 드렌테는 벌써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의 캐릭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인가?

"그건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지." 그게 말했다. 그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늘 이렇게 흥분해 있었다. "지금은 홀로를 찍을 시간이니까."

드렌테는 공장 입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다리오를 불렀다. "준비됐소?" 드렌테가 물었다.

"말만 하면 시작하죠."

드렌테는 보이스오버를 실행하며 외쳤다. "액션."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액시옴 군수회사의 다리오 셀룰리입니다. 당신에게 투견에 대해 설명해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투견 두 무리가 성능 시험장에 입성했다. 첫 번째 무리는 전차를 향해 돌격했고, 두 번째 무리는 공중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뒤에 바짝 붙어 갔다. 이 모든 것은 드렌테가 다리오에게서 받은 대본에 있는 내용이었다. 때맞춰 경장갑 무인

비행체가 성능 시험장에 나타났는데, 저그 뮤탈리스크처럼 보이도록 색칠해져 있었다.

'투건은 사이클론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적 항공기나 생체 비행체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죠.'

보행 장비들은 비행체들에게 미사일을 쏟아내고 공중에서 폭발시켰다.

드렌테의 레코더 두 개에 근처에 부서진 잔해가 떨어졌다. 아름답다고 그는 생각했다. 통신 장치로 다리오가 말했다. "환상적이군요. 잘 찍고 있죠, 드렌테?"

"당연히 드렌테가 잘 찍고 있지." 설마 드렌테가 '잘 못' 찍을 것 같다 이건가.

드렌테는 생각했다. 다른 채널에서 엘리가 끼어들었다. "드렌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계약은?"

"계약에 드렌테가 집단 학살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었소, 엘리." 드렌테가 말했다.

"돈 받았잖아." 또 다른 미사일 포가 다른 비행체들이 있던 성능 시험장의 끝에서 무인 향해 중이던 바이킹을 추락시켰다. 이미 연기가 피어올라 햇빛을 가리기 시작했다.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빛과 연기 사이의 감성. 드렌테는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목적도 속였잖소." 드렌테가 말했다. "드렌테의 관점에서선 도덕적이지 않았소."

"망할 놈의 쿠데타를 시작하기 위한 게 아니란 건 알았을 거 아냐? 이 미친 단체가 내게 총구를 겨누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고. 나 거의 죽을 뻔했어, 이 망할 자식아."

"드렌테는 지금 바쁘요, 엘리."

"드렌테는 곧 죽을 준비나 하시지." 엘리는 연결을 확 끊어버렸다.

앞서 가던 투견 무리가 미리 배치된 공성 전차 앞에 도달했다. 공성 전차들은 투견에게 포탄을 발사했는데 포탄은 폭발하지 않고 투견 주위에 불꽃만 일으킬 뿐이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인공지능이 진짜 포탄을 장비했을 거야, 드렌테." 아일라가 말했다. "당신이 몇 명의 목숨을 살렸는지 세어봐."

드렌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홀로를 찍고 있었으니까.

'근접 차량 공격을 위한 투견의 주무기는 액시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플라즈마 필드 축전 산탄 레일 건입니다. 줄여서 DPF라고 부르죠. 이 장비는 대형 산탄을 가속시켜 초당 삼천 미터의 속도로 방출합니다. 산탄은 폭발 시 원뿔형으로 확산되는 응집된 플라즈마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DPF는 가우스 무기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장갑을 뚫을 수 있으며, 폭발성으로 가해지는 부수적 피해의 우려도 없습니다.'

서로 바짝 붙은 상태에서 투견 무리는 공성 전차를 둘러쌌다. DPF 시스템과 전차에서 뿜어낸 푸른색 플라즈마 광선이 번쩍였다. 그들은 하나하나 폭발하기 시작했고, 1초에 하나씩 부서지고 불타올랐다. 그들 뒤로는 첫 투견 무리가 공성 전차와 맞붙기 시작하면 바로 출격하기로 되어 있던 바이킹이 나머지 투견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바이킹 몇 대는 불타거나 그 자리에서 녹아버렸다. 그 중 셋은 자동으로 공중 모드로 전환했는데,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투견의 미사일을 맞았다. 드렌테는 열 개가 넘는 각도에서 이 광경들을 보며 환희에 가득 찼다.

다음엔 뭐지? 그는 알지 못 했다.

'투견은 거의 즉시 DPF에서 대공 공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전장의 위협에 재빨리 대항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아일라의 목소리가 드렌테의 모니터에 달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엘리가 당신 쪽으로 가고 있어. 총을 들고."

"드렌테는 무기가 없소." 드렌테가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아일라가 말했다. "계속 촬영해."

당연하지. 드렌테는 생각했다. 공장의 펜스에 달려 있던 확성기에서 경적이 요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 드렌테는 장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연출이라 생각했다. 다리오 쪽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을 때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엘리 발포어다. 지금 액시옴 정보 시스템에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오토마르 드렌테를 체포하라. 현재 운행 중인 투건은 지금 당장 운행을 중지하라. 투건 시험을 취소한다. 반복한다. 투건 시험을 취소한다."

"당신을 찾을 거야." 아일라가 드렌테 앞의 스피커로 말했다.

그리고 드렌테는 소총 같이 생긴 걸 들고 공장 구석에서 뛰어오는 엘리를 보았다. 드렌테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었다. 엘리는 드렌테의 기증기에 위협용 사격을 한 번 하고 그를 겨눴다. "놈을 잡아! 시험은 끝났어! 이곳을 폐쇄해!"

드렌테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구류된 경험이 없었다.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다.

"드렌테, 여긴 우리가 통제하고 있어." 아일라가 말했다. "쫓지 마."

드렌테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머리 위로 또

한 번의 경고 사격이 이뤄졌다. 그래도 그는 계속 촬영했다. 투건은 무인 조종 차량과 비행체들을 파괴하며 성능 시험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파지직 거리는 푸른 DPF 광선이 잔해 사이로 뻗어나가는 동안, 화염차 두 대가 화염 기둥을 뿜어내며 파괴되었고, 성능 시험장 위로 큰 호를 그리며 진입한 망령 여섯 대가 은폐를 해제하자 바로 미사일들의 환대를 받았다. 발사하는 소리와 폭발하는 소리가 드렌테의 음향 장비를 거의 압도하고 있었다. "폐쇄해!" 엘리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 퍼졌다. 보안 차량이 공장촌 쪽의 문에서 물밀듯 쏟아져 나와 성능 시험장 쪽으로 돌진했다. 이에 구경하던 노동자들이 차량에 돌을 던졌으나, 차량은 날아오는 돌들을 금세 무시했다. 드렌테는 그의 존재가 더는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아일라가 이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길 빌었다.

혼란 속에서 드렌테의 미칠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흥분한 건 아닐까 걱정했다.

드렌테의 기증기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투건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돌더니 성능 시험장 가장자리에 있는 갓길 위로 올라가 엘리의 접근을 막았다. 엘리는 경고의 표시로 손을 치켜 올렸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오면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해주지." 그가 말했다. "이 남자는 보안을 위협하는 범죄자야."

투건이 멈췄다. 엘리는 드렌테의 플랫폼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드렌테에게 소총을 들이댔다. 투건이 드렌테의 플랫폼 오른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넌 이미 죽은 몸이야, 드렌테." 엘리가 말했다. "기업 스파이 행위는 사형감이라고."

"난 홀로 감독이오." 드렌테가 말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지." 그가 말하는 동안, 다리오의 보이스오버가 계속 재생되었다.

'대전차용으로 설계되었지만, 투건은 언제든 적 보병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 장비를 입고 있다고 DPF에 맞설 수 있는 건 아니죠.'

투건은 5미터 거리에서 DPF를 발사했다. 엘리의 몸은 순식간에 녹고, 타오르고, 분해되고는 폭발해버렸다. 드렌테는 밀려나온 열기, 소리, 그리고 엘리의 파편들을 피해 몸을 던졌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꼼짝도 안 하다가 아일라가 스피커로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네 말대로야, 엘리. 산업 스파이 짓은 사형감이지. 미안하지만 해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

드렌테는 엘리가 드렌테에게 넘겼던 크레딧의 환불을 요구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대신 엘리의 고용주들이 요구하겠지. 하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였다.

"투견들아, 지금이야." 아일라가 말했다. 드렌테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자신 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투견들은 으르렁대며 한 무리가 되어 성능 시험장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들 뒤로 불타는 전차와 바이킹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시연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엘리의 예상치 못한 죽음과 위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흥분까지... 드렌테는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화력! 속임수! 그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액시옴 군수회사는 투견을 많이 판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도 많겠지.

대형을 이룬 투견은 경영 단지의 주변에 도착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보안 차량을 상대하며 DPF 덕을 톡톡히 봤다. 드렌테는 나머지 보안병들이 트럭에서 내려 공장으로 도망치기 전까지 총 8대가 불탄 것을 확인했다. 드렌테는 기억해 두었다. 그들 중 경영 단지를 지키려고 이동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적의 구조물 수를 줄여야 할 상황에도 투견의 DPF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투견들은 펜스를 짓밟고 올라 거의 힘도 들이지 않고 조립강주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드렌테는 아일라가 공장에서 침울하면서도 흥분한 듯한 기술자 무리를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 드렌테는 들어오는 영상을 확인하며, 아일라가 모든 장면을 담아 그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드렌테는 기쁨에 거의 박수를 칠 뻔했다.

"모든 인공지능 작동을 폐쇄했다." 그녀가 모니터 오디오로 말했다. "민방위 대항조치는 소용 없어. 액시움의 멍청한 보안병들은 투견들과 싸우려 하지 않을 거다. 이곳은 지금부터 조금 달라질 거야. 액시움이 새로운 경영진 하에 운영될 테니."

투견들은 조직적으로 경영 단지의 건물들을 파괴했다. 건물의 거주자들은 뛰쳐나와 도망쳤고, 액시움 보안병들이 이틀 전 노동자들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환대를 받았다. 드렌테는 좀 자제하라고 말하려다, 저 관리자들과 경영진들 중 최소 몇몇은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죽이는 계획에 동참했을 거라 생각하고 거두었다. 그런 생각 아래 그는 자신을 자제했다.

"잘했어, 드렌테." 아일라가 말했다. "홀로는 잘 찍었어?"

"드렌테는 드렌테가 필요한 내용을 담았소." 그가 답했다.

"그렇다면 드렌테는 여길 당장 뜨는 게 좋을 거야." 아일라가 답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행성 이동선이 발사대에서 대기 중이야. 거기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어?"

"아주 빨리" 드렌테가 말했다. 그는 장비는 그대로 두고 영상만을 수집했다.

홀로레코더는 저렴하지만 드렌테는 비싸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의자였다. 그 의자는 영화 '뮤탈리스크와의 비행'

이후로 그와 함께 온 은하계의 세트장과 홀로들을 함께해왔다. 그럼에도 이들을

모두 버릴 때가 올 것이다. 아마 지금이겠지. 드렌테가 이미 폭력 사태로 번진 작은

혁명에서 휘말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지금. 드렌테가 위대한 홀로를 만들

재료는 충분했다. 의자는 충분한 대가겠지. "드렌테가 작별을 고하노라." 그는

의자에게 말하곤 엘리의 시체 파편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플랫폼에서

내려왔다. 그리곤 엉망진창이 된 시험장을 가로질러 아일라가 서 있던 경영 단지의

정문으로 걸어갔다. 늘 그랬듯, 그의 초소형 레코더가 모든 장면을 담았다.

드렌테는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하나 남아 있었다. "아일라." 그는 말했다.

"코랄로 오시오. 홀로계의 위대한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요."

"지금 날 발굴한 건가, 드렌테?" 그녀가 별난 웃음과 함께 답했다.

"그렇소." 그게 답했다. "수십 억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할 거요. 당신의

대범함과 카리스마에 빠지겠지."

"아니, 하지만 조건을 하나 제시하지." 아일라가 말했다. "야코브 일리브를 찾아내서 액시움이 그를 고용하고 싶어한다고 전해줘. 그걸 해주면 코랄에 가는 걸 고려해보지."

"신념도 있군. 사람들은 당신의 신념도 사랑할 거요." 드렌테가 말했다. 그는 매료되었다. 그 어떤 좋은 감독이라도 이 자연스러운 스타성에는 매료될 수 밖에 없으리라.

"여기서 꺼져, 드렌테." 그녀가 말했다.

그가 행성 이동선에 오르자 조종사가 말했다. "당신에게 빛을 쬐군요. 이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실 거죠?"

"만약 드렌테가 외부로 나가게 해주면, 드렌테가 보장하고 이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하지." 드렌테가 말했다.

"좋습니다." 조종사가 말했다. 그리고 함선이 떠올랐다. 드렌테는 공장과 불타는 경영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구름에 가려 사라질 때까지 찍었다. 3일. 이 모든 일이 3일 동안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일라.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액시움 군수회사의 억압에 맞서 저항군을 이끌었다. 그녀의 홀로는 충분히 찍어두었다.

그리고 만약 야코브 일리브를 찾을 수 있다면... 볼 것도 없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는 아일라를 스타로 만들 생각이었다. 부카리 V의 용감하고 위대한 새 지도자. 그녀는 곧 자치령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황량한 공장촌에서 태어났으며, 연기 뿜는 공장의 혼란 속에서 액시옴의 계략에 용감하게 대항했던 그 여자. 바로 이거야!

이건 그가 준비해서 감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투견 시험이 시작될 때만해도 상상조차 못 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만들고 싶은 이야기였다. 거기엔 진실이 있었다. 비록 실제 일어난 일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소재의 진실성을 봤을 때, 누군가는 현실보다도 더 실화 같은 실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라면 할 수 있다.' 그는 생각했다. '난 드렌테니까.'